

무주군, 도로명판 정비 나서

6월까지 부착상태·설치 적정성 등 점검·정비... 추가 설치 장소 파악도

무주군은 오는 6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도로명주소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은 도로명판의 훼손 등 부착상태를 확인하고 명확하게 잘 보이는지 여부와 정보표기, 방향표시 등 설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훼손된 명판이나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올해 내 개신·정비할 예정이다.

또 교차로나 이면도로, 골목길, 건물 밀집지역 등 추가로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500만 원 투입 예정)해야 할 장소도 파악할 계획이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김연홍 토지관리 담당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정비활동에 주력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불연요인을 없애고 안전성과 편의성



무주군은 오는 6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까지 높여 도로명주소 사용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도로명판은 현재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한전주 등에 설치돼 있는 1,245개를 비롯해 건물번호판 1만 2,768개, 그리고 도로구

간의 시작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기초번호판(건물이 없는 도로 등에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326개 등 총 1만 4,33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선옥씨 '검진아 고맙다' 책 출간

건강검진사업 어려움·중요성 현실감 있게 전달

진안군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이선옥씨는 국가 암 검진사업 담당자로서 경험한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검진아 고맙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선옥씨는 1992년에 진안군 공무원으로 첫 임용되어 26년째 보건소에 근무 중이다.

국가 암 검진사업의 담당자가 된 이후 자신이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고 연장할 수 있는 소중한 일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며 주민들에게 검진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국 86위였던 진안군의 건강검진률을 전국 1위로 끌어올리며 보건복지부장관표창도 받았다.

건강검진에 의해, 건강검진을 위해 일하는 저자는 건강검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바라고 있다.

그동안 노인정, 민민이날 등 온갖 읍면행사 현장을 누볐던 건강검진 전도사인 저자가 이제는 책을 통해 전 국민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려려 하고 있다.

또한 소아암환자의 치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전북지역 암센터에도 도서판매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며 흥분함을 전했다.

동료직원들은 "책 출간으로 각자 추진하는 보조사업들이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하며 더욱 보람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농기, 농기계 사고 주의 당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기인 모내기철이 시작되는 5월을 앞두고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 중 30% 정도가 모내기철인 5~6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60세 이상 운전자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마을입구 등에 안전사고 예방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는 한편, 장수를 전통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농기계 양보육 전 캠페인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경찰서, 선거벽보 훼손 단속

무주경찰서 수사과는 다가올 5월 9일 촛불대선을 앞두고 도내 선거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내 164개소의 선거벽보 설치장소에 대한 연계 순찰 강화로 고의적인 훼손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벽보 훼손사건 발생 시 강력사건에 준해 끝까지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진만 수사과장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농어촌공, 시설감시원 위촉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25일 2017년 시설감시원 위촉장 수여 및 안전교육을 통해 장수·진안·무주지역 8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수리시설감시원이란 공사로부터 물 관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감시 업무에 위촉된 자를 말하며, 이번 위촉대상자는 해당 수혜면적에 포함된 수리시설물(저수지, 용·배수로, 보, 배수갑문, 양·배수장 등)에 대하여 누수여부 점검, 정비, 조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등의 보조 활동을 한다.

또한, 내고향 물 해설가(김동철)를 초청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물 아껴야 할 자원 그리고 소중한 생명'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보건의료원, 학생건강검진 실시

초·중·고 대상 6월 19일까지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7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 학생건강검진은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으로 각종 질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검진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신체계측 및 병리검사, 방사선 검사, 구강검사 등 맞춤형 항목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진기간은 4월 24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기간 중 20일간)로, 각 학교별 일정을 정하여 건강검진 실시 후 학교로 결과 통보하여 시력, 구강질환, 이비인후과 및 피부질환, 혈압, 혈당 등 유소견자를 관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4인4색 마술이야기' 공연

4월 문화가 있는 날 27일 문화의집 마이홀에서

진안군은 오는 27일 저녁 7시 진안 문화의집 마이홀에서 '4인4색 마술이야기' 공연을 개최한다.

4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함과 동시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마술의 신비한 세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미녀마술사 이보름, 마술사 최원호, 변검술사 김도건, 팔러매지션 유태선

4명의 마술사가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약 80분간 진행되며, 관객과 대화하고 스킨십하는 등 관객 참여를 전제로 진행되는 팔러(PARLOR)매지션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진안군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매주) 문화가 있는 날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다양한 무료공연을 제공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세계태권도대회 급식식자재 도내산 구입 협약

조직위, 대회급식업체 BFS 등 3사와 체결... 30~50% 도내산 구입키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회 급식식자재 도내산 구입 업무협약식을 25일 오후 2시에 전북 무주 태권도원 TI경기장에서 가졌다.

이번 협약은 대회개최의 시너지효과를 지역경제로 돌리기 위해 대회 급식식자재의 30~50%를 도내산으로 구입하기 위한 협약으로, 조직위를 비롯하여 급식업체 3사와 전북도, 무주군이 참여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회의 성공과 함께 도내 지역생산 식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조직위원회 이종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신달호 친환경경유통과장, 무주군 이태현 부군수와 대회급식업체 BFS 윤이섭 대표 및 2개사 관계자, 대회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회기간 중 도내산 식자재 구입비율을 기존 A사 8%에서 30%로, B사 13%에서 50%로 확대하고, 올해 신규로 진출한 C사는 식자재의 50%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대회 식자재의 일정비율을 도내산으로 구입하게 됨에 따라 발생될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6,800만원으로 예상

되고, 대회시 태권도원 TI경기장 주변에 조성될 식당, 떡거리부스의 지역업체 입점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직위원회 이종석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도내산 식자재로 만들어진 음식을 선수단과 외국인 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맛과 멋의 전라북도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도내산 식자재 구입이 대회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마이산에 돼지모양 '느린 우체통' 설치된다

진안군과 진안우체국은 25일 마이산 '느린 우체통' 설치·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느린 우체통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진안군과 진안우체국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 추진할 계획이다.

느린 우체통이란 신속하게 배달하는 일반 우편물과 달리 우편물을 1년간 보관하였다가 1년 후에 발송하는 우체통을 말한다.

이는 편지를 매개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마이산대표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추억거리를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 진안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주요 관광지마다 설치돼 있는 일반적인 느린 우체통과는 달리 마이산 느린우체통은 마이산북부 마이둔테마공원의 컨셉에 맞게 돼지모양으로 제작돼 눈길을 끈다.

마이산 느린우체통은 마이둔테마공원 야외공연장 입구 돼지문화체험관 앞에 설치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군
GOCHANG COUNTY

한국인의 본향 고창, 도깨비가 사랑한 청보리밭!

제14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2017. 4.22(토) ~ 5.14(일) 23일간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



음성스고 고창농업관광지원센터

